



2015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

CONTENTS

목 차

1. 2015년 1분기 수출전망 / 2

2. KOTRA 수출선행지수 개요 / 5

1. 2015년 1분기 수출전망

- (총괄) 불안정한 경기 가운데 1분기 수출 前분기 수준 유지 전망
 -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前분기(52.1) 대비 0.1p 낮은 52.0 기록
 - 환율 불안정, 일본과 CIS 중심의 경기부진 등으로 '15년 1분기 지수가 '14년 4분기 대비 0.1p 하락, 우리수출은 前분기 수준 유지 예상

KOTRA 수출선행지수 및 보조지수 추이

| 구분 | '13.3Q | '13.4Q | '14.1Q | '14.2Q | '14.3Q | '14.4Q | '15.1Q | 증감(p)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
| 수출선행지수 | 55.8 | 51.9 | 52.7 | 51.9 | 51.3 | 52.1 | 52.0 | -0.1 | |
| 보조지수 | 수입국경기지수 | 52.9 | 50.9 | 50.7 | 52.8 | 52.6 | 50.7 | 49.8 | -0.9 |
| | 가격경쟁력지수 | 49.3 | 49.4 | 50.1 | 50.1 | 45.7 | 47.2 | 47.7 | +0.5 |
| | 품질경쟁력지수 | 56.5 | 56.3 | 56.7 | 57.1 | 55.5 | 56.3 | 55.5 | -0.8 |

- (하락요인) 환율 등 대외 위험요인으로 가격경쟁력과 수입국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우리제품의 품질경쟁력은 현상 유지
 - 가격경쟁력지수(47.7) 前분기 대비 0.5p 개선
 - 가격경쟁력지수는 0.5p 상승했지만 미국의 통화긴축 전망에 따른 유로·엔화가치 하락, 루블화 약세 등 영향으로 기준치(50)를 하회
 - 수입국경기지수(49.8)와 품질경쟁력지수(55.5)는 다소 하락
 - 아시아·중국을 제외한 쏘지역 경기부진 예상, 특히 아베노믹스 효과가 약화된 일본과 불안한 경제의 CIS는 수입국경기지수가 급락
 - 품질경쟁력지수는 북미·아시아·중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기준치(50)를 상회하여 우리제품의 품질은 양호한 수준 유지할 전망

'15년 1분기 지역별 수출선행보조지수

| 구분 | 유럽 | 북미 | 아시아 | 일본 | 중국 | 중남미 | 중동아 | CIS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수입국경기지수 | 50.3 (-0.1) | 61.0 (-2.5) | 55.1 (+4.4) | 35.4 (-15.5) | 59.1 (+4.5) | 38.0 (-2.2) | 50.0 (-4.9) | 18.9 (-8.9) |
| 가격경쟁력지수 | 44.8 (-4.8) | 55.3 (+5.5) | 52.5 (+0.9) | 19.3 (-5.7) | 51.7 (+9.5) | 47.4 (-1.7) | 55.2 (+3.6) | 27.8 (-10.0) |
| 품질경쟁력지수 | 55.5 (-0.4) | 59.8 (+1.0) | 58.0 (+0.5) | 42.9 (-5.3) | 56.1 (+0.7) | 50.5 (-3.4) | 57.6 (-1.5) | 52.6 (-2.3) |

* ()는 前분기 대비 증감 수치(p)

□ (지역별) 중국·북미·유럽 등은 호전, CIS·일본·중남미는 수출부진

- 선진국 시장 : 북미·유럽의 수출여건 개선, 일본은 악화 지속
 - 미국 중심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북미는 前분기 대비 1.7p 상승, 유럽도 0.1p 개선되어 수출 증가 지속 전망
 - 일본은 엔저 지속에 대한 우려와 소재산업에서 우리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前분기 대비 9.4p 급락하여 기준치(50)를 상당 하회
- 신흥국 시장 : 중국·중동아·아시아는 수출 증가, CIS·중남미는 지속 감소
 - 중국(60.1)은 前분기 대비 지수가 5.6p 상승하여 수출여건 향상 기대, 중동아(52.7), 아시아(52.6)도 수출증가가 양호할 전망
 - 유가하락과 러시아 경제위기로 CIS 지역은 前분기 대비 11.4p 급락,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경기불안의 중남미도 기준치(50) 하회로 수출 감소 예상

지역별 수출선행지수 추이

| 구분 | 유럽 | 북미 | 아시아 | 일본 | 중국 | 중남미 | 중동아 | CIS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'13. 2Q | 48.1 | 59.1 | 60.2 | 46.2 | 55.8 | 52.0 | 56.4 | 52.2 |
| '13. 3Q | 50.8 | 60.6 | 57.2 | 42.2 | 59.0 | 54.9 | 58.2 | 63.0 |
| '13. 4Q | 51.1 | 54.5 | 48.9 | 41.7 | 54.7 | 49.1 | 56.0 | 57.7 |
| '14. 1Q | 53.1 | 54.6 | 52.0 | 45.4 | 52.0 | 52.9 | 53.5 | 56.9 |
| '14. 2Q | 54.0 | 55.9 | 52.3 | 43.3 | 54.2 | 50.7 | 51.0 | 40.7 |
| '14. 3Q | 50.6 | 51.9 | 52.6 | 42.6 | 57.1 | 50.5 | 49.0 | 48.8 |
| '14. 4Q | 53.9 | 56.9 | 51.9 | 45.2 | 54.5 | 48.6 | 52.3 | 44.4 |
| '15. 1Q | 54.0 | 58.6 | 52.6 | 35.8 | 60.1 | 47.2 | 52.7 | 33.0 |
| 증감(p) | +0.1 | +1.7 | +0.7 | -9.4 | +5.6 | -1.4 | +0.4 | -11.4 |

□ (품목별) 컴퓨터·무선통신·식품류·자동차 등은 수출 증가, 반도체·석유제품·석유화학·일반기계 등은 감소 전망

- 컴퓨터(59.3), 무선통신(58.6), 식품류(58.6), 자동차(56.8), 가전(55.2) 등 수출 증가 기대
 - 컴퓨터, 무선통신은 前분기 대비 각각 8.3p, 6.9p 상승해 수출 호조, 식품류도 호조세를 보이며 북미, 아시아, 중국지역 수출이 유망할 전망
 - 자동차는 신차효과 등으로 중국과 아시아 지역 중심의 수출 확대로 지수가 前분기 대비 14.8p 상승

- LCD(53.5), 자동차부품(51.7), 석유류(50.9)는 수출이 양호할 전망
 - LCD는 前분기 대비 8.1p 상당 하락했음에도 기준치(50)를 상회하여 수출증가세는 유지, 자동차부품은 지수의 소폭 상승으로 양호한 수출 예상
 - 석유류는 지수가 2.4p 상승하면서 기준치(50)를 상회, 수출 증가세 전환
- 철강(48.4)은 지수의 상승에도 부진, 석유화학(49.5), 석유제품(47.6), 반도체(47.2)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, 일반기계(43.9)는 수출 감소 지속
 -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前분기 대비 지수 하락, 반도체도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초저가 스마트폰 급증에 따른 반도체 수요구조 변화 등으로 수출 감소 전망
 - 일반기계, 철강은 지난분기에 이어 여전히 낮은 지수로 수출 둔화 예상

주요 품목별 수출선행지수 추이

| 품목 | '14. 4Q | '15. 1Q | 증감(p) | 품목 | '14. 4Q | '15. 1Q | 증감(p)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무선통신 | 51.7 | 58.6 | +6.9 | 철강 | 43.8 | 48.4 | +4.6 |
| 반도체 | 63.2 | 47.2 | -16.0 | 석유화학 | 56.6 | 49.5 | -7.1 |
| LCD | 61.6 | 53.5 | -8.1 | 석유제품 | 56.6 | 47.6 | -9.0 |
| 가전 | 56.4 | 55.2 | -1.2 | 컴퓨터 | 51.0 | 59.3 | +8.3 |
| 자동차 | 42.0 | 56.8 | +14.8 | 섬유류 | 48.5 | 50.9 | +2.4 |
| 자동차부품 | 50.8 | 51.7 | +0.9 | 식품류 | 56.1 | 58.6 | +2.5 |
| 일반기계 | 49.3 | 43.9 | -5.4 | 기타 | 53.5 | 53.2 | -0.3 |

◆ KOTRA 수출선행지수로 보는 '15년 1분기 지역별 유망품목 전망◆

| | |
|-------|---|
| ▷ 유럽 | 무선통신(63.2), 식품류(61.8), 자동차부품(61.0) 등 |
| ▷ 북미 | 식품류(68.8), 무선통신(59.4), 자동차부품(56.4) 등 |
| ▷ 아시아 | 자동차(66.7), 식품류(64.3), 섬유류(60.0), 가전(58.1) 등 |
| ▷ 일본 | 식품류(53.6) 등 |
| ▷ 중국 | 가전(64.7), 섬유류(63.3), 식품류(63.1) 등 |
| ▷ 중남미 | - |
| ▷ 중동아 | 석유화학(69.0), 무선통신(68.4), 자동차부품(55.2) 등 |
| ▷ CIS | - |

주) 해당 지역의 관측수가 10개미만 품목은 제외

2. KOTRA 수출선행지수 개요

- (총괄) 해외 바이어 대상 오더금액 증감여부를 지수화하여 산출
 - 조사대상 바이어(기간 : 2014년 12월 3일 ~ 12월 19일, 응답자 : 해외바이어 및 주재상사 근무자 2,231명)는 해당분기 오더금액이 前분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·유지·감소 중 택일
 - 지역별 응답자 내역 : 유럽(433명), 북미(255명), 아대양주(424명), 일본(127명), 중국(328명), 중남미(212명), 중동아(317명), CIS(135명)
 - 오더금액 증감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제품 가격경쟁력, 품질경쟁력, 수입국 경기 등에 대해서도 설문, 보조지수 작성
- (산출) 오더금액 증가 및 유지 바이어 비중을 바탕으로 지수산출
 - 산출식 : $(\text{오더금액 증가 바이어 비중} + \text{유지 바이어 비중} \times 0.5) \times 100$
 - * 증감원인 분석을 위해 가격경쟁력, 품질경쟁력, 수입국 경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수 산출
 - 지수해석 : 지수는 0~100의 값을 가지며, 지수가 50 이상이면 前분기 대비 수출경기 호조, 50 미만이면 수출경기 부진을 의미



작성자
KOTRA 정부3.0추진팀 서진영 전문위원



Global Market Report 15-005

2015년 1분기
KOTRA 수출선행지수

발행인 | 김재홍
편집인 | 윤원석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5년 1월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우 137-749)
전화 | 02) 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Copyright © 2015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